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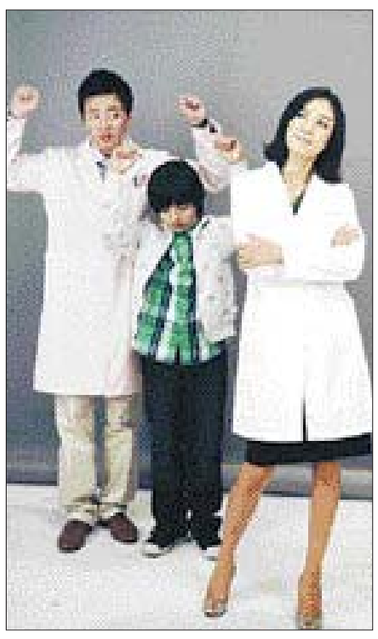
주말극 '사랑은 아무나 하나'

유·호·정

깐깐한 여자의 봄 외출

부드러운 이미지 벗고
완벽주의 여의사로 변신

"몸매 유지 비결요?
지난해부터 발레 시작
몸도 마음도 젊어져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의 한 장면.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유호정(40)이 깐깐함이 지나쳐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완벽주의자로 변신한다.

유호정은 내달 7일 첫선을 보이는 SBS TV 새 주말극 '사랑은 아무나 하나'(극본 최순식, 연출 이종수)에서 철저하게 계획대로 살아가는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 설란 역을 맡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 오후 목동 SBS에서 만난 유호정은 "이번 역할이 참 재미있다. 내 안에 숨어 있는 깐깐함이 연기하면서 좀 나오는 것 같다"며 웃었다.

"우리 남편(이재룡)이 '사슴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호랑이더라. 장가 잘못 갔다'는 말을 해요.(웃음) 엄마이자 아내인 집에서는 제가 실제로 깐깐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설란이처럼 시간표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공감은 갑니다. 설란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독한 면도 많은 여자죠."

개성 강한 네 자매의 이야기인 '사랑은 아무나 하나'에서 설란은 집안의 자랑인 둘째 딸이다.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결혼도 의사와 했기 때문. 그러나 과연 그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까.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말하는 설란은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느라 청바지 9벌을 구멍낸 여자예요. 꼼짝 않고 의자에 앉아 공부하느라 청바지의 엉덩이 부분이 해진 거죠.(웃음) 그렇게 지독한 면이 있는데 반면 책임감도 투철합니다."

그는 "2006년 MBC TV '발칙한 여자들'에서도 다소 깐깐한 캐릭터를 소화해 그렇게 낯설지는 않지만 이번 설란 역이 특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드라마에서 그는 윤다훈(수남 역)과 호흡을 맞춘다. 수남은 설란의 완벽주의에 기가 질리는 철부지 남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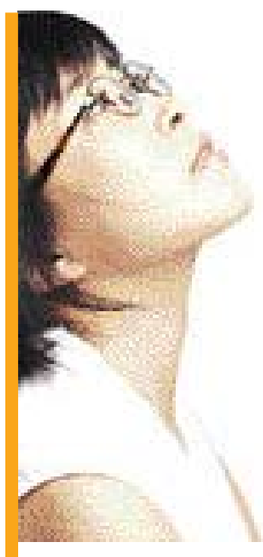
유호정은 "그간 정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난 순발력이 없는 배우 중 한 명"이라며 "그런데 우리 드라마에는 애드리브의 천재인 임현식 선배님과 윤다훈 씨가 동반 출연해 매사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며 웃었다.

"윤다훈 씨는 임현식 선배님이 애드리브를 치면 놀라지도 않고 다 받아치고 자기 대사도 까먹지 않고 처리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도 다훈 씨가 수남 역을 맡으니까 '적절한 캐스팅'이라며 좋아해요.(웃음)"

윤다훈은 "유호정 씨와 이번에 연기는 처음 같이 하지만 부군인 이재룡 씨와는 친해 평소에도 잘 알고 지냈다"면서 "올해로 연기 한 지 26년째인데 가장 잘 만난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호정 씨와 호흡이 아주 잘 맞는다"고 귀띔했다.

마흔에 접어든 유호정은 여전한 아름다움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사실 지난해부터 발레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몸이 안 좋아지고 아픈 데가 많아서 발레를 시작했어요. 거창한 것은 아니고 스트레칭 위주의 요가 발레를 하고 있어요. 7~8개월 정도 됐는데 허리 아팠던 것이 나았고, 근육이 강화되니까 체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합뉴스



이선희의 10가지 사랑이야기

14집 '사랑아…' 발표

올해로 데뷔 25주년을 맞은 이선희(45)가 자작곡으로 채운 14집 '사랑아…'를 25일 발표했다.

14집이 이선희와 팬들에게 남다른 것은 13집 '사춘기'를 낸 지 4년 만인 데다, 이선희가 2006년 말 재혼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2년 여의 공백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14집에는 이선희가 작사·작곡한 신곡 10곡 이외에도 1984년 'J에게'로 제5회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으며 데뷔한 지 25주년인 것을 기념해 '나 항상 그대를', '아 옛날이여', '아름다운 강산' 등 25년 음악 인생을 정리한 히트곡 18곡의 라이브 버전도 수록됐다.

이선희는 자작곡들을 통해 10가지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편안한 멜로디의 왈츠곡인 타이틀곡 '사랑아…'는 '사랑도, 이별도 모두가 나의 벗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가사에서 연륜이 느껴진다.

남자를 사모하는 여인의 마음을 담담하게 표현한 '참 나쁘다', 사랑이 시작될 때의 설렘을 담은 '그대 향기', 사랑이 떠난 후의 심정을 독백처럼 고백한 '시작할 수 있을까…사랑을' 등 각기 다른 순간의 사랑을 얘기한다.

또 타이거JK가 작사에 참여한 '유투(Yoo Too)'는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그 여자를 버린 남자가 대화를 하듯 노래했고, 딸 양원이를 위해 만든 '너의 길'은 힘든 순간 자신을 가장 사랑하라는 엄마의 애틋함이 묻어난다. /연합뉴스

박정현 7집 발매

박정현(33·사진)이 7집 '텐 웨이스 투 세이 아이 러브 유(10 ways to say I love you)'를 27일 발매했다. 2007년 12월 6집을 낸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새 음반에는 '나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 '비가' 등 박정현의 자작곡과 지난 음반부터 박정현의 든든한 음악 동지가 되어준 황성제, 조영수, 강현민 등 색깔이 뚜렷한 작곡가들이 참여했다.

수록곡 중 자작곡 '나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에는 윤미래가 랩 가사를 쓰고 랩 피처링을 맡아 두 디바의 만남이 이뤄졌다.